융복합에 관한 철학적 고찰

이 엽*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라이프니츠의 '보편 학문'
3. 라이프니츠의 화해의 이념과 절충주의 철학
4. 학문에서의 융복합의 궁극적인 목표: 진정한 의미의 조화와 통일
5. 정신의 확장
6. 주체적인 사고
7. 폭 넓은 범주(개념)의 활용
8.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의 취지는 학문에서의 융복합이 추구해야할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며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숙고해 보는 데 있다. 필자는 학문에서의 융복합의 궁극적 목표를, '보편 학문scientia generalis'을 구축하고자 했던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철학을 통해 추구했듯이, 진정한 의미의 조화와 통일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화와 통일은 다양한 형태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인간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자연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학문에서의 융복합이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의 확장', '주체적인 사고', '폭 넓은 범주(개념)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융복합, 라이프니츠, 조화, 정신의 확장, 주체적인 사고

1. 들어가는 말

융복합은 여러 기술이나 성능 또는 산업이 하나로 합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융복합은 하나의 시대적 유행이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서 다양한 산업에서 시도되고 있다. 학문의 경우에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문의 영역에서 이러한 융복합이 시도되는 것은 산업의 영역에서와 같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필자는 학문에서의 융복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단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학문에서의 융복합이 추구해야할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며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2. 라이프니츠의 '보편 학문'

우리가 학문에서의 융복합과 관련해서 서양 철학자들 중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보아야 할 철학자가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이다. 라이프니츠는 21살의 나이에 법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마인츠 영주와 대주교의 정치적 고문으로 일을 하다가 하노버 궁의 부름을 받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머물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주로 외교 사절로서 많은 일을 했고, 그밖에도 정치적, 법률적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했고 또 궁정 도서관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주요 도시의 학술원 창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의 생존에 프로이센 Preußen 학술원이 성립되었고 그는 이 학술원의 초대 원장이 된다. 그가 이처럼 다방면으로 활동하면서 학문 연구를, 그것도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 걸친 학문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는 수학, 물리학, 역학, 지질학, 광물학, 법학, 경제학, 언어학, 역사학, 신학, 철학 등을 골고루 연구했다.

그는 왜 여러 가지 일로 매우 바쁜 상황에서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에 관심을 지녔을까? 그것은 그의 궁극적인 관심이 모든 가능한 지식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보편 학문scientia generalis'[1] 을 구축하는 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면 '통합 학문'을 구축하고자 했을까? 그의 이러한 노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 개혁 이후에 전개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종교 개혁은 루터Martin Luther에 의한 카톨릭에 대한 반항 운동에서 시작한다. 1517년 루터는 카톨릭의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는데, 이것을 도화선으로 당시 카톨릭에 대한 불만에 불이 붙게 되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이 이후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에는 끊임없는 반목과 투쟁이 있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618년에서 1648년에 걸쳐

1) '보편 학문' 또는 '일반 학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말은, 오늘날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통합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난, 엄청난 파괴와 비참함을 동반했던 '30년 전쟁'이었다.[2)]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간의 갈등은 특히 독일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카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이든 국민 대다수의 신앙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던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은 북쪽 지역은 프로테스탄트로 그리고 남쪽 지역은 카톨릭으로 양분되어 있었기에, 양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 대표적인 예로 앞에서 언급한 '30년 전쟁'의 주 무대가 독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30년 전쟁으로 인해 독일의 대부분의 지역은 황폐화가 되었고 몇몇 지역에서는 인구가 절반 이상 줄었다. 30년 전쟁은 나중에는 유럽의 국가들 간의 패권 다툼의 양상으로 전개되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기본적인 성격은 서로 다른 교리[3)]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니츠가 보편(통합) 학문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30년 전쟁을 불러일으킨 이러한 '정신 세계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여겨진다.[4)]

---

2) 그밖에도 1540년대부터 1555년까지의 독일 전쟁, 1562-1598년의 프랑스 종교 전쟁 그리고 1566-1609년의 네델란드와 에스파냐의 전쟁을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주디스 코핀·로버트 스테이시(Judith G. Coffin & Robert C. Stacey) 지음, 박상익 옮김,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 상. 문명의 기원에서 종교개혁까지』, 소나무, 2014, pp. 706-718 참조.

3)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의화(義化) 논쟁을 통해 당시 가장 중요한 삶의 관심사였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세(現世)에서의 '인간의 사명Bestimmung des Menschen'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중세 카톨릭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도피해서 영원한 것에 관한 관조와 명상에 헌신함으로써 이미 현생(現生)에서 신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하여 "종교 개혁과 더불어 신의 말씀에 대한 다른 종류의 해석이 등장한다. 세상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신이 인간을 세운 세상 내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독교도는 그의 지상의 사명irdische Bestimmung을 다하라"는 새로운 해석이 루터에 의해 주어진다(Hans. M. Wolff, *Die Weltanschauung der deutschen Aufklärung in geschichtlicher Entwicklung*, Bern und München, ^{2}1963(^{1}1949), p. 13 이하).

4) '30년 전쟁'은 라이프니츠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카르트René

3. 라이프니츠의 화해의 이념과 절충주의 철학

보편(통합) 학문에 관한 라이프니츠의 구상은 '화해Konziliation의 이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해의 이념은 17, 18세기 독일 철학자들의 철학하는 모습을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였다.[5]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30년 전쟁으로 인해 독일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고 따라서 전쟁 상태로 치닫기까지 하는 서로 대립되는 것 사이의 화해는 독일 철학에서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이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화해의 이념

Descartes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 그토록 '확실한 앎'을 추구했던 근본 이유를 바로 이 30년 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데카르트(1596-1650)는 끊임없는 전쟁의 와중 속에서, 즉 1618년에서 1648년에 걸쳐 유럽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던 30년 전쟁 기간 중에 살았던 철학자였다. 제대로 된 철학자라면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어야만 할 것이다. 데카르트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은 학문의 잘못된 전개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전개를 종식시키고자 한다. 그가 보기에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스콜라 철학은 개연적(蓋然的)인 주장에 만족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개연적인 주장에 관해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싸움의 연장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그는 확실한 앎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철학을 완성함으로써, 개연적인 앎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학설들 간의 논쟁과 이 논쟁에서 비롯되는 싸움을 종식시키는 데 자신의 철학의 목표를 둔다. 이처럼 '30년 전쟁'은 확실한 앎의 추구라는 데카르트의 핵심 사상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5) Herman Schmalenbach, *Leibniz*, München, 1921, p. 542 참조: "화해는 [위에서 언급한 라이프니츠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 이외에] 또한 … 젊은 시기 그리고 더 나아가 비판적 시기의 칸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 그 시대의 표어Schlagwort였다". 더 나아가 Hans Vaihinger, *Kommentar zu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Bd. I, Stuttgart, Berlin, Leipzig, ^{2}1922 (^{1}1881) (Nachdruck: Aalen, 1970), p. 58 참조: "칸트 철학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중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매우 눈에 띄는 것으로, 이에 관한 이해 없이는 그의 노력과 활동은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중재하려는 경향은 독일 철학에서는 기질적인 것이다."

에 충실했던 독일의 지성인으로 그 누구보다도 라이프니츠를 손꼽을 수 있다. 그는 주로 외교 사절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가 이러한 일을 하는 데 특징적인 모습은 언제나 화해를 추구했다는 점이었다. 그는 개개의 민족이 자신이 민족 고유의 과제를 다른 나라와 협력해서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민족 연합을 꿈꾸었다. 더불어 그는 분열된 교회를 재통일하려는 일에 몰두했다.[6] 그의 철학 또한 이러한 화해의 이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다.[7] 라이프니츠 철학은 한편으로는 로크의 철학과 다른 한편으로는 데카르트의 철학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의 양 철학과의 대립이 곧 이 두 철학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라이프니츠는 각각의 철학에 숨겨진 진리의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했고, 이를 통해 양 철학을 화해시키려 하고 있다.[8]

이러한 화해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개될 수 있는 철학의 좋은 예로 독일 계몽주의 초기(初期)[9]에 등장하는 '절충주의 철학Philosophia

---

6) 그는 먼저 루터교와 개혁파 사이의 분열을 통합하고 그 다음으로는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통합을 마지막으로는 서유럽 교회와 그리스 정교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7) Vaihinger, *Kommentar zu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Bd. I, 앞의 책, p. 58 참조: "… 중재하려는 경향은 독일 철학에서는 기질적인 것이다([주(註)] 사람들은 독일 철학은 영국 경험론과 프랑스 합리론 사이의 중재라고 말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고대인들과 근세인들, 스콜라 철학과 르네상스, 가상디Gassendi와 데카르트 그리고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중재하려고 시도했던 라이프니츠에서 특히 돋보인다."

8) 라이프니츠가 말년에 레몽Ncolas-François Remond에게 보낸 1714년 1월 10일자 편지글 참조: "나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철학의 학파들에 파묻혀 흩어져 있는 진리를 찾아내어 통합하려고 애써왔다"(*Gottfired Wilhelm Leibniz. Philosophische Schriften*, Bd. V, Herausgegeben und übersetzt von Werner Wiater, Darmstadt, 1989, p. 320 이하).

9) 독일 계몽주의가 언제 시작되었고 또 종료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 먼저 시작된 시점에 관한 견해들을 살펴보면, 독일 계몽주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할레Halle 대학이 설립된 해인 1694년이 언급되기도 하고, 토마지우스Christian Thomasius가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그 당시

eclecitica'을 꼽을 수 있다. 이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먼저 19세기 독일 관념론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절충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벗어났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 독일 관념론에 의하면 모든 것이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 올바른 관점은 모든 것을 올바로 보게 하고 틀린 관점은 모든 것을 틀리게 보게 한다. 따라서 우선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이론Standpunkttheorie'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절충주의란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이 결여된 상태로 비쳐질 수도 있기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래의 절충주의 철학은 자주적인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다만 여러

라틴어로 강의되던 전통에서 처음으로 독일어로 "프랑스인을 모방하는 것에 관하여Discours von der Nachahmung der Franzosen"라는 강연(이 강연은 이미 그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강의를 프랑스어로 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독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는 물음과 더불어,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던 당시의 스콜라적 교육에 반대하면서 근대적이고 민족적이며 현실에 관계하는 교육을 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을 한 해인 1687년이 이야기되기도 한다(Werner Schneiders, *Aufklärung und Vorurteilskritik. Studien zur Geschichte der Vorurteilstheorie*, Stuttgart-Bad Cannstatt, 1983, p. 85 참조). 또는 이와 관련해서 1685년에 선포된 포츠담Potsdam 칙령이 거론되기도 한다. 루터파에 속해 있던 프로이센은 종교 문제에 관한 관용을 표방하는 이 칙령을 통해, 프랑스에서 탄압을 받고 있던 칼뱅파 신도들을 종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독일 계몽주의 종료 시점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 중 설득력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은, 독일 계몽주의의 종료 시점은 독일 관념론의 시작과 맞물린다는 견해이다. 독일 관념론은 18세기 말경에 차츰 그 철학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이를테면 이러한 영향력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던, 피히테의 대표작인 『지식학*Wissenschafstlehre*』은 1794년에 출간된다(Ludwig Siep, "Johann Gottlieb Fichte", in: *Klassiker der Philosophie*, Bd. II, Herausgegeben von Otfried Höffe, Müchen, ^{2}1985(^{1}1981), p. 42 참조). 위의 견해들을 종합할 때, 독일 계몽주의는 17세기말에서 18세기말에 걸쳐 약 100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약 한 세기 동안 전개된 독일 계몽주의는 발전 단계에 따라 초기(初期), 중기(中期), 후기(後期)로 구분된다. 철학의 영역에서 초기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토마지우스, 중기는 볼프Christian Wolff 그리고 후기는 멘델스존Moses Mendelssohn과 칸트를 들 수 있다.

다양한 견해들 중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들을 취해서 적당히 섞어 놓은 것[10]과는 전혀 다른 철학이었다.[11]

"절충주의 철학은 종파주의 철학sektirische Philosophie과는 반대로 진리는 어떤 하나의 학파의 소유일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사고하는 자들에게 나누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12] 따라서 절충주의 철학은 자신의 판단을 사용해서 서로 대립되어 있는 철학적 주장들이 포함하고 있는 진리의 요소들을 발견해 내고 이것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좀 더 완전한 진리에로 접근하려는 특징을 지닌다.[13]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노력을 통해 결국에는 반대되는 주장들의 대결 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헤겔은 라이프니츠가 절충주의Eklektizismus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는 체계성이 결여되었다고 비난을 하는데",[14] 이는 절충주의 철학 본연의 모습에 대한 헤겔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0) 17, 18세기 독일에서 이러한 종류의 철학에 상응하는 용어는 '혼합주의 Synkretismus'였다.

11) 관점 이론과 절충주의를 비교할 때, 관점 이론을 취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관점 이론에서는 한 번 관점을 정하고 나서는 그 나머지 관점에 관해 숙고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절충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관점들을 숙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12) Norbert Hinske, Artikel "Aufklärung", in: *Staatslexikon*, Bd. I, Herausgegeben von der Görres-Gesellschaft, Freiburg, Basel, Wien, ^{7}1985, p. 394.

13) "이러한 프로그램이 형성되는 데, 어떤 특정한 학파나 종교에 속하는 것은 주로 삶의 환경적 우연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이 오히려 인간 본질에 일치한다는 숙고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같은 책, 같은 쪽).

14) Hans Poser, "*Gottfried Wilhelm Leibniz*", in: *Klassiker der Philosophie*, Bd. I, Herausgegeben von Otfried Höffe, Müchen, ^{2}1985(^{1}1981), p. 403.

4. 학문에서의 융복합의 궁극적인 목표: 진정한 의미의 조화와 통일

화해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라이프니츠 사상에 따르면 우주 내의 모든 개체적인 존재들은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의 단자론(모나드Monad론)에 의하면 무기물까지도 영혼을 지니고 있고, 모든 종류의 영혼들은 실체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악(惡)도, 그의 이른바 불협화음의 이론에 따르면, 필요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의 예정 조화설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흔히들 개체의 독립성을 강조하다보면 전체의 통일성과 조화가 깨지게 된다. 또 전체의 통일성과 조화를 강조하다보면 개체 각각의 의미는 전체 속에 함몰되고 만다. 자칫 전체주의적 사고로 흐를 수 있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이 둘을, 개체의 독자성 및 의미와 전체의 조화라고 하는 두 요소를 그의 사상에서 다 살려내고 있다. 그의 사상의 장점은 세계의 조화와 통일이 강조되면서도, 세계 내의 모든 것들의 독자성과 의미를 인정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랬을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의 조화와 통일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니츠가 조화롭고 통일된 세계관을 주장한 데에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계를 조화롭고 통일된 상태로 진전시키고자 바람이 담겨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그가 보편(통합) 학문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보여진다. 라이프니츠의 보편(통합) 학문이 시도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롭고 통일된 세계를 건설하는 일은, 오늘날의 학문의 융복합에서도 시도되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또한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는 지역, 계층, 종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전쟁

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좌 우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해 비극적인 6·25전쟁을 경험했고 또 아직도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여러 형태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간의 갈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인간 세상을 건설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조화로운 세계의 구축은 인간 세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자연 환경도 포함된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지니느냐에 따라 인류 역사가 달라져 왔고 또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 숭배 시대를 거쳐 인간 중심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연 숭배 시대를 벗어나면서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게끔 되었지만, 인간 중심주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서 이러한 자연 파괴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관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자연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많은 생명체들이 지구 전역에서 오늘날 실제로 죽어가고 있듯이 인간 또한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세계 또한 매우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학문에서의 융복합은 이러한 세계를 구축하는 일에도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5. 정신의 확장

앞에서는 학문에서의 융복합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에 관해 생각해 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 숙고해 보고자 한다. 서로 상이한 것들 또는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정신적으로 큰 그릇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신이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편(통합) 학문을 구축하고자 시도했고 세계 내의 모든 것들의 조화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라이프니츠은 분명 이러한 큰 정신의 소유자였다고 여겨진다. 정신적으로 큰 그릇과 관련해서 또 다른 좋은 예를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국사기』에는 최치원(崔致遠)의 난랑비서(鸞郎碑序)의 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다. "나라에 신의 뜻인 듯싶은 도가 있는데 그 이름을 풍류라고 한다. 그 도의 연원은 선가의 사적에 잘 밝혀져 있으며, 사실상 풍류는 세 가지 사상[유교, 불교, 도교]의 원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說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 三敎)."[15] 이 구절은 유교, 불교, 도교가 유입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상적 독자성을 지닌 풍류라고 불리는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석되기도 하고,[16] 또는 이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7] 풍류를 유불도가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삼교를 종합한 것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된 이 구절은 한국 사상의 특징적 모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융합 내지는 융화 정신의 주요 전거로 인용된다.[18] 이 구절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이해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도, 유불도 삼교를 수용하기 이전에

15) 김부식, 『三國史記』, 卷4, 眞興王 37年條.
16) 더불어 풍류 사상에 담겨 있는 원리는 유불도 삼교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것이었다고 이야기된다.
17) 이동준, 「한국철학의 성찰적 논의와 전망」, 『한민족 철학자 대회 1999』, 별지, 한국철학회, 1999, p. 12 참조.
18) 이를테면, 엄정식, 「비판적 종합으로서의 한국 사상」, 『한민족 철학자 대회 1999』, 대회보 1, 한국철학회, 1999, p. 173 이하 참조.

우리에게는 이미 정신적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도 매우 큰 정신적 바탕 내지는 그릇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상이한 고급 사상들이 종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은 한 차원 위에 섰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어지는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정신적으로 큰 그릇을 지닐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 합리성에 몰두하고 있는 서양 철학을 통해서는 도달하기 힘들다고 여겨진다.[19] 서양 학문성의 기준인 이론적 합리성은 산업 사회와 과학적 문명을 가능하게 한 주요 기반이었으나,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론적 합리성을 따지는 분석적 작업은 정신의 폭을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데는 자기 수양, 즉 인격을 도야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했던 동양의 전통적인 학문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양학은 "단순한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20] 수행을 통한 "주체적인 자아 혁명의 방법론"[21]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레 밖에서 수레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레를 타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자아를 한 단계 높이는 '삶의 양식'"[22]이었기 때문이다.

6. 주체적인 사고

정신의 확장과 더불어 학문에서의 융복합을 위해 요구되는 것

19) 이것은 또한 '오늘날의' 동양 철학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동양 철학도 서양의 학문 방법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서양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작업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그것은 더 이상 학문으로 불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20) 박현, 『나를 다시하는 동양학』, 도서출판 바나리, 1999, p. 18.

21) 같은 책, 같은 쪽. 같은 책, p. 24 이하 참조.

22) 같은 책, p. 18.

이, 주체적인 사고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에서의 융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열린 사고가 필요할 텐데, 열린 사고와 주체적인 사고는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체성이 강조되다 보면 사고가 폐쇄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주체성은 폐쇄성과는 거리가 멀다. 주체성이 깃들여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 독자적인 사고를 수행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신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정신이 살아있을 때, 정신은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열린 정신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이질적인 것의 주체적인 수용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주체성을 상실한 경우, 정신은 닫힌 정신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정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몫이어야 할 인식 활동과 판단을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종파에 넘겨주고, 이 안에 갇히게 될 것이다. 닫힌 정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진리가 주로 환경적 우연성에 의해 속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종파 또는 학파의 소유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절충주의 철학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주체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23]

7. 폭 넓은 범주(개념)의 활용

학문에서의 융복합을 위해 이질적인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 즉 유개념(類槪念)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철학의 유일한 도구는 '개념'이다.[24] 따라서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

23) 앞의 주 13 참조.

24) 이는 철학에 관한 칸트의 정의에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그의 철학에 관한 정의 중 하나에 따르면, 철학은 "개념에 의한 이성 인식"이다(『순수

는 모든 것, 즉 인간과 세계에 관해 철학적 사고를 하고자 한다면, 불가피하게 개념들을 도구로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도구로 사용된 개념들의 질적 내용에 의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사고의 질은 결정된다. 또한 사용된 개념에 따라 '사고의 폭'도 결정된다. 외연(外延)이 큰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사고의 폭은 넓어지게 된다. 이것은 다만 철학적 인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 활동 일반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개념)의 수(數)만큼만 사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들의 질적 내용과 폭에 따라 사고의 질과 폭이 결정된다. 학문에서의 융복합을 위해서는 사고의 폭이 넓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외연이 큰 개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학문에서의 융복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를테면 '기(氣)'라는 개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기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이 둘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 전반의 기능과 구조를 설명"[25]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

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 B 741, 760, 『임마누엘 칸트의 논리학. 강의용 개론*Immanuel Kants Logik ein Handbuch zu Vorlesungen*』, A 22, 23, 『도나-분트라켄 논리학*Logik Dohna-Wundlacken*』(XXIV 697), 『빈 논리학*Wiener Logik*』(XXIV 797). 또한 『순수이성비판』, B 865, 『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skraft*』, B XI, 『단편*Reflexion*』 *5645*(XVIII 293), 『유작*Opus postumum*』(XXI 119) 참조). 칸트 생존시 출판된 저서들은 바이셰델이 편집한 칸트 전집*Immanuel Kant, Werke in sechs Bänden*,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Darmstadt, ^{6}1983(^{1}1956-1964)) 에서 인용한다. 그리고 이 전집에서 제시된 원판 쪽 수로 표기한다. A는 1판, B는 2판을 나타낸다. 칸트의 유고 그리고 강의 필기는 프로이센 왕립 학술원Königlich Preußische Akademie der Wissenschaften과 그 뒤를 잇고 있는 학술원들이 편집한 전집(*Kant's gesammelt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ihren Nachfolgern], Berlin, 1900 이하)에서 인용한다. 로마 숫자는 이 전집의 권수(卷數)를, 아라비아 숫자는 쪽 수를 나타낸다.

25) 미조구찌 유우조, 마루야마 마쯔아키, 이케다 토모히사(溝口雄三, 丸山松

로 '몸' 개념을 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여기서의 몸은 서양적 의미의 육체body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분할을 거부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몸 개념을 통해 철학, 심리학, 생리학, 의학, 체육학, 동양의 전통 수행법 등 다양한 학문 영역들 간의 융복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8. 나가는 말

이제까지 우리는 학문에서의 융복합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숙고해 보았다. 학문에서의 융복합은 다양한 형태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세계관의 혼재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유의 빈곤화'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문의 융복합을 통해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이데올로기나 학파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틀을 지닌 사유로 나아가는 것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이데올로기나 학파와의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유의 빈곤화에서 벗어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것이 오늘날의 학문의 모습이다. 이러한 현대 학문의 모습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우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접 학문의 성과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을 수 없게 되고 또 학문이 잘못 진행되는 경우 다른 학문 영역에서 아무런 비판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학문에서의 융복합을 통해 사정이 달라진다. 어떤 특정한 학파나 학문 영역의 체계 내에서는 맞거나 수용 가능한 이론이, 학문의 융복합을

幸, 池田知久) 편저,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중국사상문화사전』, 민족문화문고, 2003, p. 55.

통해 형성되게 되는 넓은 틀 내에서는 다른 이론들과 상충되거나 쓸모없는 이론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기존의 사상 틀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지평 위에서 대상들을 고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사유의 빈곤화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유의 빈곤화에서 벗어날 수도 있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조화와 통일이라는 학문의 융복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의 설정은, 이를테면 자연 환경의 파괴를 막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수준 높은 지향점을 통해 우리의 정신이 고양(高揚)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의 고양은 사유의 빈곤화에서 벗어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문에서의 융복합은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전통을 오늘날 되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홍익 인간(弘益人間)'이라는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은 민족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인간을 이(利)롭게 하다'로 이해되고 있는[26] 그리고 더 나아가 '널리 뭇 생명을 이롭게 하다'로까지 그 해석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 고조선의 국가 이념인 홍익인간은, 기존에 존재했었던 국가 이념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27] 우리가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이데올로기나 학파 또는 학문의 영역을 고수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사람들 간의 그리고 사람과 자연 간의 진정한 의미의 조화와 통일을 목표로 하는 학문의 융복합을 추구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홍익

---

26) 이와는 다른 이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류탁영은 이러한 일반적인 이해를 비판하면서 이 말은 '크게 돕는 사람이 되어 평화스럽게 살자'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류탁영, 『되새겨 보는 우리의 뿌리』, 한국적산연구소, 1996, pp. 11-27 참조).

27) 현재에도 그렇지만 일찍이 이러한 국가 이념을 지녔던 나라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국가 이념에서는 다만 내 나라 내 민족만의 복지와 평화가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정신을 오늘날 다시금 되살려는 '일'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김부식, 『三國史記』.

Kant, Immanuel, *Kritik der reinen Vernunft*, in: *Immanuel Kant, Werke in sechs Bänden*,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Darmstadt, ^{6}1983(^{1}1956–1964).

_____, *Kritik der Urteilskraft*, in: *Immanuel Kant, Werke in sechs Bänden*,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Darmstadt, ^{6}1983(^{1}1956–1964).

_____, *Immanuel Kants Logik ein Handbuch zu Vorlesungen*, in: *Immanuel Kant, Werke in sechs Bänden*, Herausgegeben von Wilhelm Weischedel, Darmstadt, ^{6}1983(^{1}1956–1964).

_____, *Reflexionen*, in: *Kant's gesammelt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ihren Nachfolgern], Berlin, 1900 이하.

_____, *Opus postumum*, in: *Kant's gesammelt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ihren Nachfolgern], Berlin, 1900 이하.

_____, *Logik Dohna–Wundlacken*, in: *Kant's gesammelt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ihren Nachfolgern], Berlin, 1900 이하.

_____, *Wiener Logik*, in: *Kant's gesammelte Schriften*, Herausgegeben von der Königlich Preuß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ihren Nachfolgern], Berlin, 1900 이하.

Leibniz, Gottfired Wilhelm, *Gottfired Wilhelm Leibniz. Philosophische Schriften*, Bd. V, Herausgegeben und übersetzt von Werner Wiater, Darmstadt, 1989.

2. 논문

엄정식, 「비판적 종합으로서의 한국 사상」, 『한민족 철학자 대회 1999』, 대회보 1, 한국철학회, 1999, pp. 170–188.

이동준, 「한국철학의 성찰적 논의와 전망」, 『한민족 철학자 대회 1999』, 별지, 한국철학회, 1999, pp. 5–51.

Hinske, Norbert, Artikel "Aufklärung", in: *Staatslexikon*, Bd. I, Herausgegeben von der Görres-Gesellschaft, Freiburg, Basel, Wien, ^{7}1985, pp. 390–400.

Poser, Hans, "Gottfried Wilhelm Leibniz", in: *Klassiker der Philosophie*, Bd. Ⅰ, Herausgegeben von Otfried Höffe, Müchen, ^{2}1985(^{1}1981), pp. 378–404.

Siep, Ludwig, "Johann Gottlieb Fichte", in: *Klassiker der Philosophie*, Bd. Ⅱ, Herausgegeben von Otfried Höffe, Müchen, ^{2}1985(^{1}1981), pp. 40–61.

3. 단행본

류탁영, 『되새겨 보는 우리의 뿌리』, 한국적산연구소, 1996.

박현, 『나를 다시하는 동양학』, 도서출판 바나리, 1999.

미조구찌 유우조, 마루야마 마쯔아키, 이케다 토모히사(溝口雄三, 丸山松幸, 池田知久) 편저, 김석근, 김용천, 박규태 옮김, 『중국사상문화사전』, 민족문화문고, 2003.

주디스 코핀 · 로버트 스테이시(Judith G. Coffin & Robert C. Stacey) 지음, 박상익 옮김, 『새로운 서양 문명의 역사. 상. 문명의 기원에서 종교개혁까지』, 소나무, 2014.

Schmalenbach, Herman, *Leibniz*, München, 1921.

Schneiders, Werner, *Aufklärung und Vorurteilskritik. Studien zur Geschichte der Vorurteilstheorie*, Stuttgart-Bad Cannstatt, 1983.

Vaihinger, Hans, *Kommentar zu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Bd. I, Stuttgart, Berlin, Leipzig, ^{2}1922(^{1}1881) (Nachdruck: Aalen, 1970).

Wolff, Hans. M., *Die Weltanschauung der deutschen Aufklärung in geschichtlicher Entwicklung*, Bern und München, ^{2}1963(^{1}1949).

[Abstract]

A Philosophical Reflection on Syncretism

Lee, Yeop

Syncretism or fusion in the science in these days seems to seek after the enhancement of the economic added values as its main purpose. This paper may be said to be reflection on this current trend in the scientific researches. In this thesis I have considered what should be the real object of the fusion in the science and what means and methods are available for its realization.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yncretism in the studies, I believe, should consist in harmony and unity in the real sense of the word, as was sought by Leibniz who attempted to establish 'scientia generalis' in his own philosophical works. This harmony or unity will enable u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present world disrupted with conflicts and sufferings of all sorts, finally con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harmonious world of humanity. It will also serve the purpose of building a world where both men and nature can coexist harmoniously before reckless ecological devastation may reduce the nature to the irrecoverable status. Among the indispensible means for these purposes of syncretism in science may be included 'extended consciousness', 'subjective thinking', and 'the exploitation of category (concepts) capable of comprehending heterogeneous elements'.

Key words: syncretism, Leibniz, harmony, extended consciousness, subjective thinking

이엽
소속: 청주대학교 교양학부
주소: (363-17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 신화아파트 5동 803호
전화번호: 010-4090-6937
전자우편: yeoplee@cju.ac.kr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0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